

재일(在日) 제주인의 제주지역 교육발전에 대한 공헌

고 광 명*

본 연구는 재일제주인의 제주지역 교육발전에 대한 공헌을 고찰해 봄으로써, 최근 재일제주인의 삶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되는 시기에 국내·외 재일한인 연구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일제주인의 기증은 수혜를 받은 개인에게 생활 향상과 같은 경제적 도움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제주의 지역개발을 비롯한 경제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둘째, 재일제주인은 학교 부지, 교사(교실)건축을 비롯한 도서시설, 악기류, 시청각 교재, 동상 및 탑, 일반비품, 체육시설 등 교육시설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셋째, 재일제주인은 제주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 제주여자학원과 남녕학원 등 학교설립 및 육성에 대한 큰 공헌을 했다. 넷째, 재일제주인은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부동산·시설 건축, 비품, 도서, 기념물 건립, 기금·운영비 등 교육 지원 활동에 대한 많은 공헌을 했다. 다섯째, 재일제주인은 가족이나 친척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 기증과 교육시설 지원, 학교발전에 대한 공헌을 통해 교육 및 인재양성에 재일제주인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들의 애향심과 제주 사회의 기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주제어: 재일제주인, 기증, 교육시설 지원, 교육발전에 대한 공헌

I. 머리말

작년 2010년은 1910년 8월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경술국치(庚戌國恥) 100년이 되는 해였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은 한반도를 36년간 강제적으로 지배하면서 해방 전후(前後) 많은 제주도 출신들이 일본으로 이주하여 어려운 삶을 살아오게 했다. 결국, 일본의 지배는 제주도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제주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으로 남아 있다.

2009년 기준 현재 재일제주인은 재일한인 589,239명 중 93,162명으로 약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재일한인 전체 중에서 경상남북도(161,447명, 118,479명)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入管協會, 2009). 이들은 일제강점기에 징용·징병 등 자발적 이주(spontaneous emigration)

* 제주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특별연구원(email: kkm0630@jejunu.ac.kr)

© 접수일(2011년 2월 25일), 수정일(1차, 2011년 3월 11일), 게재확정일(2011년 4월 21일)

가 아닌 강제적으로 이주(involuntary immigration)되거나 해방 이후 4·3사건과 전쟁을 피해, 그리고 이주노동자와 출가해녀(出稼海女) 등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들 대부분은 도쿄(東京) 미카와시마(三河島)나 오사카(大阪) 이쿠노구(生野區) 등의 대도시에서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간토(關東)와 간사이(關西) 지역을 중심으로 재일제주인의 공동체(community)를 형성하고 있다. 당시 일본으로 이주한 제주도 출신들 중 남성들은 대부분 조선, 탄광, 토목 등에 단순노동으로 투입되었던 반면, 여자들은 주로 방적(紡績)공장에서 일하면서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중노동에 시달려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일본사회 속에서 정신적 지주와 애향심, 그리고 상호간 인적교류를 통해 재일제주인의 정체성(identity)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이국생활의 온갖 역경 속에서도 자신들의 삶보다 고향의 어려운 현실을 더 걱정했다. 제주도에 밀려온 애향의 물결은 마을과 마을을 잇는 교량가설, 도로 확·포장, 상수도, 전화·전기가설, 학교시설, 마을회관 건립에 이르기까지 마을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이들은 제주도 지역개발을 위하여 교육·문화 분야를 비롯한 관광·감귤 산업에 이르기까지 심적·물질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외에도 이들은 제주지역의 교육 및 인재양성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과 장학 지원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제주도 사회경제 발전을 비롯한 교육과 지역개발에 재일제주인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던 것이다(永野慎一郎編, 2010). 결국, 현재 제주도는 재일제주인의 많은 기증과 교육지원 활동으로 교육발전 향상에 한 축을 형성하였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재일제주인의 역할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재일제주인의 삶 속에서 고향에 애향심을 표현한 기증과 교육시설 지원, 교육발전에 대한 공헌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지금까지 재일제주인과 제주도와와의 관계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상호 동반적 관계로 생각하기보다는 제주도 출신들을 지역사회에 일방적으로 물질을 제공해 주는 대상으로만 인식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는 재일제주인의 기증과 교육발전 공헌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재일제주인 1세를 비롯한 2·3·4세에게도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재일제주인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다음으로 재일제주인의 제주지역 교육시설 지원을 알아보며, 마지막으로 재일제주인의 교육발전에 대한 공헌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재일제주인의 의미

재일제주인의 의미라는 것은 ‘재일동포(在日同胞)’의 개념을 원용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제주인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이며, 일시 체류, 영주권자, 유학, 2세와 3세 등을 모두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에 거주하는 제주출신들을 지칭하는 용어들은 제주출신 재일동포, 제주출신 재일교포, 재일 제주출신자, 제주출신 재외교민, 교민사회 등 매우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여기서 ‘재일(在日)’을 규

정하는 것이 국가시스템에 따른 한국이나 조선(북한)이라는 국적 표시인지, 또는 우리와 같은 혈통인지, 또는 역사나 문화에 얽힌 의식인지, 나아가서 재일한인의 권리획득을 위해 싸우는 존재인지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될 수 있다(尹健次, 2002: 285-315).

현재 재일제주인의 처해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재일제주인은 일본사회 속에서 재일한인으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도 다른 지역출신자에 비해 강한 지역성을 표출하는 이중구조(二重構造)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재일제주인은 1925년 당시 다른 지역출신의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쿠노구(生野區)에서 ‘섬놈’이라는 이유로 멸시당하는 이중적 차별을 일본사회에서 감수해야만 했다. 특히, 이들은 ‘아리랑단’이라는 조직을 구성해서 제주도 출신들에게 수많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제주출신들은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저력으로 지금의 재일제주인 사회를 형성하여 왔다.

둘째, 재일제주인은 일본문화 속에서 생활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제주문화를 지키려는 의식이 강한 이면성(裏面性)을 갖고 있다. 이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제주문화를 의식하고 간직하기보다는 일본문화에 흡수되어 생활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원인은 해방 이후 6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재일한인 사회의 세대교체도 착실히 진행되는 가운데 의식과 가치관, 생활형태가 다양화되고, 민족교육을 받는 동포 자녀가 격감하는 중에 일본 국적 취득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일한인을 포함한 재일제주인은 바야흐로 국적이나 혈연, 의식 상태나 세대교체 등의 측면에서 복잡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셋째, 재일제주인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강한 사람들로 형성되어 도(道) 단위보다는 마을(里·洞) 단위의 공동체적(共同體的)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일본사회에서 불합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 문중, 학교, 마을 등 여러 형태의 친목단체와 같은 비공식조직(informal organization)을 잘 형성하면서 혈연(血緣), 학연(學緣), 지연(地緣)과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강하게 지속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본래 개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제공하는 상호부조의 기제(基劑)로써 활용되어 재일제주인 사회의 공동체적 연대성을 발휘하는 기능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넷째, 재일제주인은 일본사회에서 동일한 입장의 재일한인 중에서 배우자를 찾고자 하는 가치체계의 양면성(兩面性)을 지니고 있다. 즉, 그것은 제주도 출신자가 일본사회에서 생활하여 온 타 지역출신자와 교류가 있고, 일본인보다는 가치 체계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국가의 사람으로서 수용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도 출신자 속에서도 2·3세는 소위 재일한인으로써 타 지역 출신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본국의 유교적 사고를 흡수하여 개념화한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제주도의 생활양식이 전달되어 가부장제적(家父長制的) 사고가 강하지 않아 결혼하면 부모와 따로 사는 등의 현상이 발생했다(高鮮徽, 1996: 138).

따라서 본고에서는 재일제주인의 의미를 일본사회 속에서 온갖 차별과 멸시를 극복하면서 피와 땀으로 재일제주인의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여 재일제주인 사회를 보다 공고하게 형성하고 그들의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존재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Ⅲ. 재일제주인의 제주지역 교육시설 지원

1. 재일제주인의 기증

가. 재일제주인의 기증 현황

재일제주인의 기증은 제주도·제주도민들과의 물질적 관계를 기초로 하는 지연(地緣), 학연(學緣), 혈연(血緣)적 결속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교류를 의미한다. 이것은 재일제주인의 애향심, 고향인 제주도와의 연대, 제주도민과 재일제주인과의 동반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여 왔다(고광명·진관훈, 2006: 148-181).

<표 1>에서 재일제주인의 기증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교육사업(18,606,541천 원)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공사업(7,932,056천 원), 즉 새마을 사업과 같은 분야에 대한 기증이 가장 활발했다. 예를 들면, 1960년대 초 개발단계에서는 도로, 전기·전화, 상·하수도 개설 등과 같은 생활기반 조성사업, 새마을 사업, 감귤농장 초기 조성, 마을개발, 교육·문화 등이 제주도 발전에 커다란 경제적 자원으로 작용하여 왔다. 특히, 1980년 이후에서 1990년대 사이에 교육사업 분야가 두드러지는 것은 기증 초기의 생활시설 사업 및 생활향상 수준에서 벗어나 제주도 경제가 발전됨으로써 교육 분야와 같은 미래지향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증 동기도 초기의 동정적 애향심, 경제적 우월성에서 벗어나 경제적 성취에 대한 과시와 사회적 명예, 체면 등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小川伸彦·寺岡伸悟, 1995: 77-97).

하지만 재일제주인의 기증은 지역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미미한 편이다. 오히려 여기에는 재일제주인의 기증 현상에 대해 무감각해져 가거나, 나아가 의존심의 강화, 기대육구의 증가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잠재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들에 대한 제주사회의 인식이 형제애, 상호 동반적 관계라기보다는 일방적이고 물

<표 1> 재일제주인의 기증 현황(단위: 천원)

연대별 \ 사업별	교육사업	공공사업	문화사업	기타	합계
1960년대	277,613	71,992	80,217	8,010	437,832(1,966건)
1970년대	338,775	616,405	220,836	107,252	1,283,268(2,837건)
1980년대	7,136,222	3,894,924	317,789	233,853	11,582,788(1,825건)
1990년대	6,281,027	2,825,706	123,320	328,172	9,558,225(1,543건)
2000년대	4,572,904	523,029	2,000	168,053	5,265,986(469건)
합계	18,606,541	7,932,056	744,162	845,340	28,128,099(8,640건)

· 주: 2000년대는 2007년 6월 30일까지임.

· 자료: 濟州特別自治道(2007), 「愛郷의 보람-在日同胞 寄贈實績」.

질적 제공의 존재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게다가 수혜자인 제주사회가 기증에 대한 사후처리나 심적 보상에 대한 무성의한 대처로 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다.

<표 2> 재일제주인의 개인·단체를 통한 기증 실적(단위: 건수, 천원)

구분	년도	개인		단체		전체	
		건수	실적	건수	실적	건수	실적
제주도	1950년대	0	0	1	500	1	500
	1960년대	18	7,419	22	20,835	40	28,254
	1970년대	211	120,031	73	79,083	284	199,114
	1980년대	265	2,483,289	71	179,182	336	2,662,471
	1990년대	85	2,342,601	24	5,703,373	109	8,045,974
	2000년대	41	3,512,004	14	738,146	55	4,250,150
제주시	1950년대	2	20	0	0	2	20
	1960년대	564	35,926	15	2,803	579	38,709
	1970년대	335	82,684	26	27,413	361	110,097
	1980년대	178	4,713,726	21	41,882	199	4,755,608
	1990년대	84	790,533	3	8,000	87	798,533
	2000년대	21	160,390	2	20,000	23	180,390
서귀포시	1950년대	142	1,078	5	1,020	147	2,098
	1960년대	520	42,282	15	6,527	535	48,809
	1970년대	346	72,647	14	33,070	360	105,717
	1980년대	118	481,348	10	20,740	128	502,088
	1990년대	35	397,520	8	21,730	43	419,250
	2000년대	83	386,726	3	12,616	86	399,342
북제주군	1950년대	34	2,742	9	6,170	43	8,912
	1960년대	927	139,359	78	57,066	1,005	196,425
	1970년대	1,437	389,301	44	39,213	1,481	428,514
	1980년대	1,010	2,175,464	39	45,534	1,049	2,220,998
	1990년대	503	1,238,070	14	17,158	517	1,255,228
	2000년대	67	304,739	2	4,015	69	308,754
남제주군	1950년대	17	4,993	1	4,000	18	8,993
	1960년대	705	83,942	26	16,535	731	100,477
	1970년대	1,177	400,706	41	27,381	1,218	428,087
	1980년대	455	884,069	9	9,294	464	893,363
	1990년대	120	1,220,591	5	14,651	125	1,235,242
	2000년대	7	76,000	0	0	7	76,000

· 주: 2000년대는 2007년 6월 30일까지임.

· 자료: 濟州特別自治道(2007), 『愛郷의 보람-在日同胞 寄贈實績』.

나. 재일제주인의 개인·단체별 기증

재일제주인의 지역사회 공헌은 재일제주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제주도간의 사회적 결합의 강도를 파악해 본다는 의미가 있다. 제주도에 사는 사람치고 재일제주인의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직·간접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들의 지역사회 공헌은 수혜를 받은 개인에게 생활향상과 같은 경제적 도움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제주의 지역개발을 비롯한 경제발전에도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표 2>에서 재일제주인의 개인·단체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의 연대별 흐름을 살펴보면, 기증 실적은 총 9,219건으로 이중 제주도 697건, 제주시 1,159건, 서귀포시 1,241건, 북제주군 3,667건, 남제주군 2,455건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면, 북제주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사회 공헌의 건수, 금액 면에서 가장 많게 나타났다. 이것은 재일제주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인 친목회, 향우회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활성화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재일제주인의 개인·단체를 통한 일본 속에서의 기증 활동은 제주도에서 지역사회 공헌 현상과 더불어 재일제주인의 지연 네트워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일제주인의 지역사회 공헌은 마을 단위의 노력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재일제주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광명, 2008: 187~210). 최근에는 제주도의 경제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 도민들이 먹고 사는 걱정이 사라지면서 재일제주인의 본도에 대한 기증 패턴도 변모하고 있다. 향후 재일제주인의 기증은 물품보다는 본도의 길흥사에 내는 성금이나 의연금을 기탁하는 쪽으로 패턴이 변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재일동포모국공적조사위원회, 2008: 145).

2. 재일제주인의 교육시설 지원

재일제주인의 애향심은 제주도의 산업발전과 소득향상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발전에 큰 힘이 되어왔던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일제주인의 기증은 공공사업, 문화사업에 비해 교육사업 분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50년대를 전후하여 1978년까지 제주도 교육시설에 지원한 실적은 초등학교 171,490천 원, 중학교 133,317천 원, 고등학교 72,098천 원 등 총 376,905천 원에 이르러 초등학교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일제주인의 교육 지원은 각 지역 또는 마을 주민과의 연대로 이루어지면서 제주도에 거의 마을마다 초등학교가 있었고, 읍면까지 중고등학교가 설립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제주도교육청, 1979: 458).

<표 3>에서 보면, 재일제주인의 애향심에 따른 교육시설 지원은 1950년대 25,996천 원, 1960년대 113,360천 원, 1970년대 262,751천 원, 1980년대 5,402,346천 원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1,204,484천 원, 2000년대 256,529천 원에 달하면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60년대 이후 고국방문의 문호가 개방되면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고향 주민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에 보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재일제주인의 지원 내용도 학교 사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학교부지 매입(633,830천

<표 3> 재일제주인의 교육시설 지원 현황(단위: 천원)

연대	구분	재일제주인의 교육시설 지원 현황(단위: 천원)				
		학교부지	교사(교실) 건축	도서시설	악기류	시청각 교재
1950년대 이전		8,930	14,680		378	292
1960년대		8,760	54,223	23,553	11,769	3,256
1970년대		46,750	71,925	28,485	28,849	17,364
1980년대		569,390	4,127,303	154,742	50,327	83,631
1990년대		0	465,932	38,181	42,029	56,287
2000년대		0	0	20,100	8,600	0
합계		633,830	4,734,063	265,061	141,952	160,830
연대	구분	재일제주인의 교육시설 지원 현황(단위: 천원)				
		동상 및 탑	일반비품	체육시설	과학기구	기타
1950년대 이전			275	102	1,220	119
1960년대		170	4,442	2,141	993	4,053
1970년대		24,575	10,421	15,078	3,400	15,904
1980년대		32,117	119,838	6,988	15,550	242,460
1990년대		24,250	228,646	4,513	0	344,646
2000년대		0	0	0	0	227,829
합계		81,112	363,622	28,822	21,163	835,011

· 주 1: 2000년대는 2007년 6월 30일까지임.

· 주 2: 1970년대는 기존자료에서 누락된 1979년도 실적을 조사하여 추가하였음.

· 자료: 濟州特別自治道(2007), 『愛郷의 보람-在日同胞 寄贈實績』; 제주도교육청(1979), 『제주교육사』.

원)에 따른 보조를 비롯하여 교사건축 및 교실증축(4,734,063천 원), 도서(관) 시설(265,061천 원), 시청각교재(160,830천 원), 악기류(141,952천 원), 동상과 탑 건립(81,112천 원), 체육시설(28,822천 원), 과학기구(21,163천 원), 학교 일반비품(363,622천 원), 울타리 축조, 도로정비, 학습지, 교문, 교사 및 숙사, 급수시설, 국기계양대, 온실, 부속건물, 스쿨버스 등 기타(835,011천 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육지원 활동이 이루어졌다. 결국, 재일제주인은 교사건축 및 교실증축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학교부지 확장을 위한 보조, 도서관(실) 건립 및 도서류, 시청각 교재, 악기류 순으로 지원하는 등 교육시설 확충에 중점적으로 지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일제주인은 배움이 어려웠던 자신의 한(恨)을 고향의 후배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물질 및 교육시설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적 지원에 대한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 결국, 이것은 재일제주인의 정신적 지주로서 작용하면서 제주지역의 학교발전을 비롯한 교육발전에도 커다란 역할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IV. 재일제주인의 교육발전에 대한 공헌

재일제주인의 교육지원은 앞에서 기술한 기증과 혼재되어 나타나거나 유산 등과 같은 고향 제주도에 자산을 위탁하는 형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친인척들과의 사적거래에 있어서 갈등관계가 형성되기도 하며 대규모 공식적 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1965년에는 제주도 개발을 위한 해외동포 재산반입 허가에 관한 처리지침이 정부에 의해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재일제주인의 향토개발을 위한 교육 투자의 길이 열렸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공식·비공식 자료를 통해 파악된 재일제주인의 학교설립, 교육지원, 장학지원 등 교육발전에 대한 공헌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학교설립에 대한 공헌

제주도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기점으로 역사의 원동력을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유는 교육을 통해서 지도자를 양성하고 정치적 역량을 키우고 경제·문화의 이해 등에 대한 인적자원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주도는 8·15해방, 4·3사건, 6·25전쟁 등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 배고픔을 참으면서도 우리 민족과 제주지역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도 한몫을 했다. 거기에는 우리 민족과 제주인의 가슴속에 일본 식민지 36년 동안의 억압된 생활에 좌절하지 않고 힘겹게 이어온 민족의 저력과 열정이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단, 학교설립은 제주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재일제주인의 투자를 통해 학교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학교를 인수하여 공헌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공식·비공식 자료를 통해 파악된 재일제주인(김평진, 백이남)의 학교설립에 대한 공헌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동천(東泉) 김평진(金坪珍)은 1966년 운영난에 허덕이는 제주여자학원(濟州女子學園)을 인수하여 여성교육의 요람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갔다. 당시 본 학원은 호은(湖隱) 김홍빈(金弘斌)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1946년 2월 10일에 설립되었지만 형제간의 학교경영에 대한 의견과 불화가 심각해지면서 더 이상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이때 재일제주인 기업가 김평진은 김평식(당시 제주관광호텔 사장)의 주선으로 1966년 7월 제주여자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수하였다. 현재는 장남 김화남(金和男)이 제주여자학원 이사장(1995.11~현재)으로 취임하여 새로운 발전을 목표로 추진하면서 미래 지향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학교법인 제주여자학원·제주여자중학교 외, 2006: 393~394).

다음으로 송제(松濟) 백이남(白二南)은 1916년 7월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2474번지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한문(서당)을 수학했고, 청소년기에 생활고에서 벗어나고자 1947년 32세 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서도 “男兒立志出鄉關, 學若無成死不還(남아가 뜻을 세워 고향을 나와 이루지 못하면 죽어서도 돌아오지 않겠다)”이라는 결심을 거듭 다짐하며 인내로 삶을 살

았다. 그는 타향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수돗물이 없던 시절에 우물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였고, 초·중학교 교실이 노후한 것을 알고 신축과 개축에 소요되는 많은 금액을 회사하였다.

백이남은 1910년 10월 도쿄 마치다(町田) 나루세(成瀬)에 성남종합병원을 설립한 이후 어린 시절에 교육시설이 부족하고 배우려 해도 배울 수 없었던 시절을 떠올리며 고향에 배움의 터전을 만들어 주자는 일념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1985년 2월 학교법인 남녕학원(南寧學園)을 설립하여 1986년 3월 남녕고등학교(대지 11,000평, 총 건평 3,300평)를 개교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그는 본교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수익사업체로 남녕개발(南寧開發)을 설립하여 학교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 그는 평소 학생들에게 열심히 학문에 전념하고, 그 배움은 나라를 위해 베풀어야 한다는 애국 학생을 천명하여, 건학이념에 학생들이 실천해야 할 생활철학으로 삼게 했다. 현재는 백용환(白湧煥)이 남녕학원 이사장(1995.3~현재)으로 취임하여 제2의 창학(創學) 원년으로 삼아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학교법인 남녕학원·남녕고등학교, 2006: 9). 결국, 이들은 향토교육 사업에 전념하여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였으며, 고향에 교육기관을 건립·육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2. 교육지원에 대한 공헌

지금까지 재일제주인은 향토발전을 위해 육영사업, 감귤진흥, 전화·전기, 수도, 도로포장, 문화·체육, 새마을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왔다. 단, 학교교육지원은 교육시설의 연약함을 해소하기 위해 재일제주인의 현금이나 현물을 통해 학교시설에 필요한 다양한 비품 등을 기증한 경우이다. 이러한 재일제주인 중에서 김평진, 안재호, 강충남 등은 제주지역의 교육지원에 대한 공헌을 위해 여러 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우선, 김평진은 1962년 5월 회천분교에 비품(678천 원)을 회사한 것을 비롯하여 1963년 삼양초등학교 건립 및 비품, 1964년 삼양초등학교 비품, 1966년 회천분교에 교실 건축부지(605천 원)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광명, 2010: 315-333).

<표 4> 동천 김평진의 교육지원 현황 (단위: 천원, 개)

수증처	품명	종류	금액	수량	기증 목적	기증년도
삼양동	건립 기금	현금	600		삼양초등학교 건립	1963
	피아노	현물	60	1	삼양초등학교 비품	1964
	오르간 외	현물	35	2	삼양초등학교 비품	1963
	오르간	현물	25	1	삼양초등학교 비품	1964
봉개동	오르간·사이렌	현물	678	2	회천분교 비품	1962
	신축 기금	현금	605		회천분교 신축	1966

· 자료 : 濟州特別自治道(2007), 『愛郷의 보람-在日同胞 寄贈實績』에서 조사 작성.

고 광 명

다음으로 고당(古堂) 안재호(安在祐)는 학교부지(4,555천 원), 교실신축(428천 원)을 비롯하여 도서(30천 원), 시청각 교재(130천 원), 일반비품(4,730천 원), 체육시설(2,061천 원), 과학기구(200천 원),

<표 5> 고당 안재호의 교육지원 현황 (단위: 천원, 개, m²)

수증처	품명	종류	금액	수량	기증 목적	기증년도
애월읍	시계	현물	18	1	애월상업고등학교 비품	1963
		현금	18		애월중학교 운영비	1962
한경면		현금	18		신창중학교 운동시설(농구대)	1963
		현금	18		신창중학교 교실 증축	1963
2도동		현금	17.5		신성여자고등학교 체육시설용	1962
화북동	철봉, 평행봉	현물	25	8	오현고등학교 시설 및 체육시설	1962
아라동	자동복사기	현물	17.5	1	제주여자고등학교 비품	1962
노형동		현금	62		제주농고, 제주제일중 교육 용구	1962
2도동		현금	30		광양초등학교 앰프시설	1967
대정읍		현금	17.5		무릉중학교 교문건립	1963
		현금	20		무릉중학교 정문건립	1964
남원읍	충전용 발전기	현물	50	1	남원중학교 비품	1963
성산읍	타자기	현물	18	1	성산수산고등학교 비품	1962
	토지	현물	3,000	1,098.9	성산수산고등학교 시설비	1963
표선면		현금	410		가시초등학교, 표선중학교 건축	1964
		현금	35		표선중학교 택지 구입비	1963
		현금	20		표선중학교 택지 구입비	1964
정방동	국기계양대	현물	17.5	1	서귀중학교 국기계양대 시설비	1962
표선면	도서함	현물	30	1	표선초등학교 비품	1967
		현금	1,500		표선중학교 택지 구입비	1967
		현금	30		가시초등학교 캐비닛 구입비	1967
		현금	30		화산초등학교 교재 구입비	1967
		현금	30		표선상업고등학교 비품	1973
	朝鮮禮臺 외 1	현물	200	2	표선중학교 이설	1973
		현금	1,500		표선상업고등학교 교육시설	1973
	朝鮮禮臺 외 1	현물		6	가시초등학교 실험기구 구입	1973
		현금	200		표선중학교 운동장 스탠드 시설	1974
		현금	2,000		표선중학교 비품	1974
앰프 외 7		현물	100	1	가시초등학교, 표선초등학교, 표선중학교, 표선상고 교육시설	1976
		현금	5,100		표선상업고등학교 비품	1976
		현금	3,500		가시초등학교 복사기 구입	1987

· 자료 : 濟州特別自治道(2007), 『愛鄉의 보람-在日同胞 寄贈實績』에서 조사 작성.

<표 6> 효천 강충남의 교육지원 현황 (단위: 천원, 개)

수증처	품명	종류	금액	수량	기증 목적	기증년도
표선면	피아노	현금	175	1	화산초등학교 시설비	1964
		현금	600		표선중학교 이설	1973
		현금	50,000		표선상업고등학교 이설	1981
		현물	1,120		화산초등학교 비품	1981
		현금	1,500		표선상업고등학교 이설 축하	1983
		현금	500		표선중학교 환경조성 지원비	1983
		현금	42,000		화산초등학교 급식소 시설비	1993
		현금	23,000		화산초등학교 급식소 신축	1994

· 자료 : 濟州特別自治道(2007), 『愛郷의 보람-在日同胞 寄贈實績』에서 조사 작성.

기타(6,873천 원) 등 제주도 각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 많은 교육시설을 지원했다. 그는 가시리초 등·중학교 교실신축(410천 원)을 비롯하여 시설확충, 그 외 학습용구와 같은 현물 지원도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 고향인 가시리뿐만 아니라 제주도 모든 지역에 걸쳐 기부를 요청해 오면 늘 쾌척했다(고광명, 2010: 69-88).

마지막으로 효천(曉泉) 강충남(康忠男)은 고향 마을에 화산초등학교 시설비(175천 원), 표선중학교 이설(600천 원), 화산초등학교 비품(1,120천 원) 등 그동안 매년 제주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그는 항상 지역사회의 발전을 생각하면서 표선상업고등학교 이설(50,000천 원), 화산초등학교 급식소 신축(23,000천 원) 및 시설(42,000천 원)에 큰 공적을 남겼다(고광명, 2010: 81-105).

3. 장학지원에 대한 공헌

제주도 장학지원 활동은 해방을 전후하여 경제적 혼란기에도 불구하고 독지가에 의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1960년대 이후에 들어 재일제주인은 학교건립, 학교시설, 교재교구 등 물질적인 측면에 국한하지 않고 고향의 가난한 자녀 중에 학업성적이 뛰어난 학생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교육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단, 장학지원은 제주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제주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비롯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 공헌한 경우이다. 이러한 재일제주인 중에서 이두후, 안명규, 김정광, 김영조, 한재용, 김순자, 백창호, 고매화, 이근식 등은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뜻을 두고 장학지원에 대한 공헌을 많이 했다.

우선, 이두후(李斗厚, 성산면 온평리)는 이두후장학회(李斗厚獎學會)를 조직하여 성산수산고등학교 재학생에게 1962년부터 1976년까지 학비에 해당하는 장학금 및 대학 진학생에게 1973년부터 학비 전액을 지급하였다. 다음으로 안명규(安明奎, 조천면 신흥리)는 1976년 춘원장학회(春園獎學會)를 설립하여 고향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노력하였다. 이 장학회는 고등학교·대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200만 원씩 3년 동안 총 1,693만원을 지급하였다.

그 뒤를 이어 김정광(金正廣, 구좌면 김녕리)은 1978년 삼려장학회(三麗獎學會)를 설립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장학금(기금 1억 원, 연간 지급액 1천만 원)을 지급하였다(제주도교육청, 1979: 662). 김영조(金永祚, 제주시 도평동)는 1978년 영도복지회를 창립하여 제주중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었다. 또한 한재용(韓在龍, 조천면 함덕리)은 1960년대 초 고향에 있는 함덕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비품을 보내면서 교육지원 활동을 해 왔다. 특히, 고향 출신자들(5명)은 1988년에 기금 5,000만 원을 거출하고 재단법인 함덕장학회(威德獎學會)를 설립하여 2008년까지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해 왔다.

이 외에도 김순자(金順子)는 남편 좌수반(左銖磐, 애월읍 금성리)의 유지에 따라 1994년에 10억 원을 출자해서 좌수반문화재단을 설립했다. 이 장학재단은 그 동안 생활이 어렵고 가난한 학생들(70여 명)에게 6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육영사업에 공헌하였다. 백창호(白昌鎬, 제주시 건입동)는 1986년 제주컨트리클럽을 설립하여 고향발전에 이바지해 왔고, 1994년 기독교 법인단체인 운산장학회를 창립하여 도내 학생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 왔다. 고매화(高梅化, 한경면 낙선리)는 청운장학회를 설립하여 조수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매년 학비를 지급하였다. 이근식(李根植, 서귀포시 도평동)은 1998년 6억 2천만 엔의 사재를 출연하여 도교에 청봉(靑峰)국제교육진흥재단(후에 청봉장학재단으로 개칭)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본국의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제주도 출신의 우수한 유학생을 선발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금(5억 엔)과 운영자금(1억2천만 엔)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재일제주인은 가족이나 친척뿐만 아니라 마을의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교육지원 활동을 시작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이들은 제주도 전체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표 7> 재일제주인의 주요 장학지원 현황

설립자	출신지역	년도	장학회 명칭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이두후(李斗厚)	성산면 운평리	1962	李斗厚獎學會	고등학생	장학금·학비
안명규(安明奎)	조천면 신흥리	1976	春園獎學會	고등·대학생	장학금
김정광(金正廣)	구좌면 김녕리	1978	三麗獎學會	도내 학생	장학금
김영조(金永祚)	제주시 도평동	1978	영도복지회	중학생	장학금
한재용(韓在龍)	조천면 함덕리	1988	威德獎學會	청소년	장학금
김순자(金順子)	애월읍 금성리	1994	좌수반문화재단	도내 학생	장학금
백창호(白昌鎬)	제주시 건입동	1994	운산장학회	도내 학생	경제적 지원
고매화(高梅化)	한경면 낙선리	?	청운장학회	초등학생	학비
이근식(李根植)	서귀포시 도평동	1998	청봉장학재단	유학생	학비·장학금

· 자료 : 제주도교육청(1979), 『제주교육사』 등 각종 자료에서 조사 작성.

V. 맺음말

본 연구는 재일제주인의 기증과 교육발전에 대한 공헌을 고찰해 봄으로써, 향후 재일제주인 연구 분야에서 연구주제를 확장하고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재일제주인의 기증은 수혜를 받은 개인에게 생활향상과 같은 경제적 도움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제주의 지역개발을 비롯한 경제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둘째, 재일제주인은 학교부지, 교사(교실)건축을 비롯한 도서시설, 악기류 및 시청각교재, 동상 및 탑, 일반비품, 체육시설 등 교육시설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셋째, 재일제주인은 제주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 제주여자학원과 남녕학원 등 학교설립 및 육성에 큰 공헌을 했다. 넷째, 재일제주인은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부동산·시설 건축, 비품, 도서, 기념물 건립, 기금·운영비 등 교육지원 활동에 많은 공헌을 했다. 다섯째, 재일제주인은 가족이나 친척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 기증과 교육시설 지원, 학교발전에 대한 공헌을 통해 교육 및 인재양성에 재일제주인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들의 애향심과 제주사회의 기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재일제주인과 제주도 사회와의 건전한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은 최근 재일한인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되는 시기에 국내·외 한인사회 연구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재일제주인의 제주지역 교육발전에 대한 공헌을 살펴봄으로써 재일제주인의 삶의 가치를 재조명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제주도민들은 재일제주인의 기증과 교육지원 활동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삶이 지니는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고광명(2008). 재일제주인의 삶과 사회적 네트워크. *日本近代學研究*, 22, 187-210.
 고광명(2009). 재일(在日)제주인 기업가의 경영활동 특성. *日本研究*, 12, 293-313.
 고광명(2010a). 재일(在日)제주인의 제주도에서의 기증과 투자활동. *日本近代學研究*, 27, 217-242.
 고광명(2010b). 재일(在日)제주인 기업가 東泉 金坪珍 연구. *日本近代學研究*, 30, 315-333.
 고광명(2010c). 재일(在日)제주인 기업가 曉泉 康忠南 연구. *제주발전연구*, 14, 81-105.
 고광명(2010d). 재일(在日)제주인 기업가 古堂 安在祐 연구. 강제병합 100주년에 본 일본과 제주도. 2010년 (사)제주학회 제32차 전국학술대회, 69-86. 2010년 11월 19일. 제주상공회의소.

고 광 명

- 고광명·진관훈(2006). 재일 제주인의 상공업 활동과 지역사회 공헌. *社會科學研究*, 14(1), 148-181.
- 尹健次(2002). 21세기를 향한 '在日'의 아이덴티티.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재일동포모국공적조사위원회(2008). *母國을 향한 在日同胞의 100년 足跡*, 서울: 재외동포재단.
- 제주도교육청(1979). *제주교육사*.
- 학교법인 남녕학원·남녕고등학교(2006). *南寧二十年史*.
- 학교법인 제주여자학원·제주여자중학교(2006). *건학 60년*.
- 濟州特別自治道(2007). *愛郷의 보람-在日同胞 寄贈實績*.
- 高鮮徽(1996). *在日濟州島出身者の生活過程：關東地方を中心に*, 東京: 新幹社.
- 高鮮徽(1998). *20世紀の滯日濟州島人-その生活過程と意識*, 東京: 明石書店.
- 小川伸彦·寺岡伸悟(1995). 在日社會から「故郷」濟州道への寄贈-エスニック・マイノリティの地縁結合. *社会学論集*, 2, 77-97.
- 永野慎一郎編(2010). *韓國の經濟發展と在日韓國企業人の役割*, 東京: 岩波書店.
- 入管協會(2009). *在留外國人統計*.

<Abstract>

The Study of Jeju People Living in Japan: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Jeju Education

Koh, Kwang-myong
(Jeju National University)

This is to study the donation for and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Jeju education by the Jeju people living in Japan. As the lives of Jeju people living in Japan is regarded as important as ever in the study of contemporary Jeju society, this study will indicate some implication to the scholars who study the significance of the Jeju people living in Jeju in and out of Korea. My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donation of Jeju people living in Jeju brought economical benefits and improvement of their lives to the beneficiaries. Second, Jeju people living in Japan supported Jeju society with wide range of educational facilities and equipment as the school sites, construction of the school buildings, library collections, musical instruments, visual aids, statues and towers, school equipments, and gymnasium facilities. Third, they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Jeju Women's School and Nam-nyong School to educate Jeju young generation. Next, to improve educational environment of Jeju, they donated real estate, school facility and equipment, books, along with monument construction and school funds raising. Finally, they granted scholarship for the students from the low income families and support their families, too.

From the study of these factors, it was revealed that their donation, support, scholarship did help Jeju society educate and develop its human resources. Also, this study will help Jeju society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donation and support by Jeju people living in Japan.

<Key words> Jeju people living in Japan, Donation, Support with Jeju educational facilities,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Jeju education

